

남부시장, 국가대표 시장으로 '우뚛'

전주시, 21일 대구 엑스코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통시장 활성화 대통령 표창

전주남부시장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이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주남부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주남부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주남부시장은 지난 1473년 우리나라 향시의 효시로 태동했으며, 1903년 공설시장의 형태로 재탄생 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장으로 번영을 누려왔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상

권 침투 및 경기침체로 인해 빈점포가 증가하고 시장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전주남부시장은 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고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젊은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아시장을 조성해 한옥마을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의 전국적인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주남부시장은 현재 글

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남부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정책을 배우기 위한 전국 지자체 및 상인회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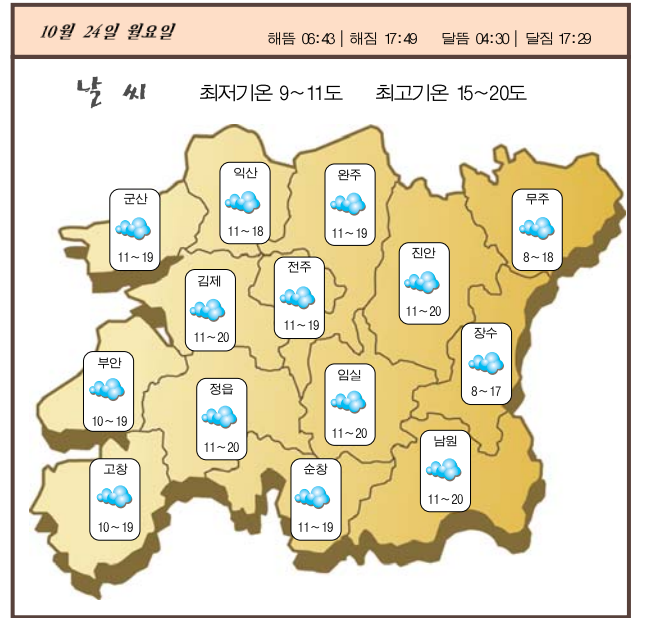
우수시장(단체) 표창을 수상한 하현수 남부시장 회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서 "청년몰을 시장으로 끌어들이어 전주남부시장을 청년몰 및 아시장의 성공을 이룬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살 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통시장은 단

순히 편의성만 보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어렵지만 문화와 추억의 관점으로 보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많은 경쟁력을 가진다. 남부시장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며 "앞으로 전주의 모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우수시장 박람회'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1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기 위해 전국 141개 시장이 참여했다.

/김영재기자



당겨래 당겨! 전주시 삼천도사대학협의회(회장 허정)가 지난 21일 삼천동 그린공원에서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와 학부모, 어르신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토리산 다람쥐마을 가을 운동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독서대회 개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는 한마음 독서대회가 전주동물원 중앙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이옥자)는 관내 66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과 독서대회 기념식 및 시상, 동물원 생태미네북, 시장남게 편지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옥자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독서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코어사업단 프랑스 연구기관과 협약

전북대가 글로벌 지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프랑스 연구기관과 손을 맞잡는다.

전북대학교 인문학당강화사업 추진단(전북대 코어사업단)은 글로벌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프랑스 아키텐 지역 민족·민속학 연구소와 프랑스 PAU대학교 페이드라두르 ITEM 연구소 등 2개 기관과 상호 협력 및 교류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민 전북대 코어사업단장과 장자르 카스테레 아키텐 지역 민족·민속학 연구소장, 파르시카 카스테레 프랑스 PAU대학교 페이드라두르 ITEM 연구소 책임자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코어사업단은 프랑스 지역학 연구의 선도기관인 두 연구소와 상호 협력 및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 및 교육 관련 정보를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연구 시설 및 출판물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생·학자 간 교류 및 학술 연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 관련 각종 학술 활동을 추진하는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키텐 지역 민족·민속학 연구소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문화가 혼재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대로부터 지역의 토착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UNESCO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페이드라두르 ITEM 연구소는 피레네산맥에 위치한 대학 부설연구소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종민 단장은 "세계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연구하는 아키텐 연구소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페이드라두르 ITEM 연구소의 협약은 우리 대학 글로벌 지역학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행동수칙'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청렴행동수칙·준수의무와 책임·징계 등 구성

전북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들의 직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한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각 실과의 자체 청탁유형과 대책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청렴행동수칙'은 목적

과 적용대상, 청렴행동수칙,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5급 이상 기관장 및 각 부서의 부서장, ▲인사업무 직원, ▲감사업무 직원 ▲청렴도 취약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 등이다.

관한 남용이나 제3자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는 관리직급 교직원의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행사를 금지하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편의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활용, 부하직원 사적지시, 부적절한 출장 근무 시간 사적 업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도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또 부서별 부정청탁 위험 업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부청 12개 부서가 자체선정한 청탁

위험 업무는 ▲성과 평가, ▲감사 관리, ▲학습부교재 선정, ▲승진 및 진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급 관리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행동수칙 제정과 부서별 청탁위험업무 관리대책은 분청 각 실과의 기관, 학교의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www.nonghyup.com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 농심을 품고**
협동조합이념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 농민 속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
농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국민 곁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대성농협 흥덕농협 고창부안축협